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5주일
제3권 33호(다해) 2010·7·11

[묵상]



착한 사마리아인
〈구스타브 도레, 동판화, 1853년, 카셀출판사, 런던〉

어떤 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율법의 답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 과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할 때
저절로 생기는 가없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사제,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 누구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웃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음에서 이는 것,
그것을 행하는 이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배론 청년회 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 (작수달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첫째/셋째주-대학부(PACEM)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2: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여용여, 엄은섭 도로테오, 이승억 헤로
	(생)
주 일 낮 미사	(연)조지 가보라, 김주일 미카엘,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민춘식 & 박순금 고준희 제임스, 김중환 야고보, 강성여, 이다니엘, 배기학, 나향숙, 황인홍 빅토리아, 장현숙 발바라, 최하남 & 최치동, 김미카엘 & 이마리아,
	(생)고규재 체칠리아, 마크 안, 오세호 레이몬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신명기(Deuternomy) 30,10-14

화답송 ○없는 자들이 주님을 찾으라. 너희 마음은
살리라. <전례서가 84 연중 제15주일 다해>
○주여, 나는 은혜로운 때에 당신께 비오니,
그 넓으신 자비 그 진실된 사랑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자비하심 너그러우시니,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 사랑 지극하시니 나를 굽어살피옵소서.○
○가여울손 나는 애처로우니,
하느님 도와주시어, 일으키소서.
하느님의 이름을 노래로 내 찬미하오며,
사은의 송가로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하느님은 시온을 구하시리라.
유다의 고을들을 이룩하시리라.
당신 종들 후손이 대대로 이어받아,
그 이름을 받드는 자 거기에 머무르리라.○

제 2독서 콜로새(Colossians) 1,15-20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복음 루카(Luke) 10,25-37

영성체송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시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400	214
봉헌	409	217
성체	370	306
파견	372	181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생명에 대한 인간의 책임

바로 이러한 이유로 암필로키우스(Amphiloichius) 주교는 "지상의 모든 선물들 가운데에서 선택되고 고양된 거룩한 혼인"이 "인류를 낳는, 하느님 모상의 창조자"라고 찬양했다. 그러므로 혼인으로 결합된 남자와 여자는 신성한 일 속에서 부모가 된다. 즉 출산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의 선물이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생명이 미래를 향해서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별한 부모의 사명, 즉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에 봉사하는 임무에는 모든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는 특히 생명이 가장 약한 상태에 있을 때 이행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다. 그분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신의 형제자매들 안에 계신 당신을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요구하신다.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이방인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갇힌 사람들……이들에게 해준 것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헤드린 것이다.(마태 25,31-46 참조).

▶태중 아이들의 존엄성

44). 인간의 생명은 세상에 들어오는 시기에, 그리고 시간의 영역을 떠나 영원으로 건너가는 시기에 가장 상처를 입기 쉽다. 하느님의 말씀은 생명이 질병과 노년으로 쇠약해졌을 때 돌보아 주고 존중하라고 거듭 명하신다. 초기 단계의 생명, 특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과 임중에 가까운 생명을 보호하라고 하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명령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처한 생명에 해를 입히거나, 공격하거나, 실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단순한 가능성조차도 하느님 백성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사고방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만 보아도, 하느님께서 그러한 상황에 처한 생명을 보호하도록 명하신다는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구약에서 불임은 무서운 저주인 반면에, 자손을 많이 두는 것은 축복이다. "아들들은 주님의 선물이요, 몸의 소생은 그분의 상급이다."(시편 127,3; 128,3-4 참조) 이러한 믿음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 번성하라는 명을 받은 계약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자각에도 기초를 두고 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이 불어날 것이다."(창세 15,5)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실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부모가 전달하는 생명의 기원은 하느님이시라는 확실성이다. 많은 성서 대목들이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대목들은 잉태, 태중의 생명 형성, 출산,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과 창조주 하느님의 활동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서 존경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계속)

“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복음은 서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누구나 길 가는 사람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믿습니다. 게다가 ‘초주검이 된 사람’을 보고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리는 사제나 레위인 같은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심성이 그처럼 모질거나 악하지는 않다고 믿고 싶어하며, 설령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말 못할 딱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 믿고 싶어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에는 강도도 있고, 사제와 레위인도 있으며, 착한 사마리아 사람도 있으며, 그리고 ‘초주검이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음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에 대해 비난하고, 감동하며, 불쌍히 여깁니다. 적어도 한 개인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을 ‘개인들’ 사이의 사건에서 ‘사회’ 혹은 ‘세계’의 범위로 확장하여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사회나 집단에 태어나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 사회는 개인으로서 나의 의식과 행동을 형성하는 데 막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회칙 「사회적 관심」과 「백주년」을 통해서 ‘사회의 주체성’과 ‘사회의 소외’란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비록 인간과 동일한 성격은 아니지만, 한 사회 역시 그 자체로 마치 생명을 갖고 있는 유기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기회만 되면 ‘세계화’, ‘지구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강도와 같은, 레위인과 사제와 같은, 초주검이 되어 쓰러져 죽어가는 사회 혹은 집단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시아나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빈민촌(비위생적인 거주지역)에는 전 세계 인구의 40%가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이 빈민촌은 초주검이 되어 쓰러

져 있는 우리의 이웃 사회가 아닐까?’ 그렇다면 ‘레위인과 사제의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이 빈민촌을 외면하면서 자기들만의 풍요와 품위를 향유하기 위해 반대쪽 길을 가는 이른바 선진 사회는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빈민촌의 상처를 싸맨 다음 자기의 노새와 돈 써가면서 돌보아주는 착한 사마리아의 사회는 없을까?’ 하는 물음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가장 큰 계명으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네가 살 것이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남(다른 사회)을 죽이지 말며, 혼자(우리 사회만) 살려 하지 말며, 초주검이 되어 쓰러져 있는 이웃(다른 사회)을 돌보는 것, 그것이 삶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처에서 ‘주님’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탐욕을 자유로, 무차별한 침탈을 경쟁으로 교묘하게 포장한 이른바 ‘신자유주의의’의 ‘일류선진국’이란 미망(迷妄)에 사로잡혀 죽음의 길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속한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면, 그 안의 개인이 건강한 선택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초주검이 된 이웃(사회)을 일부러 외면할 수도, 아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인간의 존엄함과 공동선과 사회정의를 위해 선의의 뜻을 가진 이들과 연대할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호소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
서울 대교구 신수동성당 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신덕레 테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다음 주 전례 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황지영 안젤라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 ◆ 제66차 남가주 ME 첫주말 참가 신청
- 일시 : 9월3일(금)~5일(주일)
 - 장소 : Mary & Joseph Retreat Center
 - 등록비 : \$ 50
 - 본당 M.E. 세어링 : 7월25일 주일 오후 6시 강당
 - 문의 : 백삼위 M.E.대표부부 김성현 유스티노 & 김희연 루시아 ☎(310)347-1665

◆ 예비자 교리 시작

우리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교회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전신자들이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장소 : 2층 교리실
- 세례식 예정 : 예수님 성탄절
- 문의 : 복음화 분과 김중섭 마틴 위원장 ☎(213)820-7636

◆ 백삼위 신심단체 '1인1단체 가입' 캠페인

-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새 회기를 맞아 각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 가입 확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참여하여 본당 발전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사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방학

- '거룩한 독서' 수요반과 금요반이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 개강 : 9월 초

- ◆ 상본(성모님) 콜링카드가 새로 준비됐습니다.

- 유효기간, 연결수수료 등이 없는 가장 저렴한 전화카드
- 한국 통화 1분에 2.7센트
- 값 : \$20(사무실)

새 임기를 맞은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총회가 셋째주일로 하주 앞당겨졌습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7월 11일(주일) : 토런스 서 1반(배추시래기국밥 \$3)
- 7월 18일(주일) : 토런스 남 1반(회덮밥 \$3)

성전헌금

합계 : \$4,480

공지사항

◆ 첫영성체 / 신영세자 사진 찾아가세요.

- 대상 : 지난 6월5일 첫영성체 예식과 세례를 받은 학생들은 사무실에서 기념사진을 찾아가세요.

◆ 방학중에도 주일 학생미사(9:30am 한국어) 있습니다.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12학년
- 기간 : 7월23일(금) 낮 12시 성당 출발
7 25일(주일) 오후 5시 성당 도착
- 준비물 : 슬리퍼백, 세면도구, 주일학교 티셔츠, 미사헌금
- 추가등록 : 7월18일까지(\$195)

남가주 소식

◆ '청실 홍실' 제3차 만남의 장

- 일시 : 7월18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 옥스포드 호텔, LA
- 신청 및 문의 : 남가주 한인 종신부제협의회
시몬 정 사무국장 ☎(714)530-3111

◆ 이나시오 영성수련 침묵피정

- 일시 : 8월6일(금)~10일(화)
- 장소 : Prince of Peace Abbey 피정의 집
- 주제 :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마태오 5,3)
- 지도 : 이영찬 사도 요한 신부(예수회)
- 참가비 : \$430 * 문의 : 김레지나 ☎(310)748-9710

◆ 평화방송/평화신문 선교체험사례 공모

선교체험사례 공모는 특히 본당 내 여러 단체와 팀으로 활동하며 예비신자들을 입교시키거나 냉담교우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한 사례를 선정해 격려하고 모범으로 삼고자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제 : 단체와 팀으로 선교한 감동적인 이야기
- 응모 대상 : 본당 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및 팀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정도(A4 3~4장)
- 응모마감 : 8월 27일(금)
- 접수 : 전자우편 missionary@seoul.catholic.or.kr
- 수상자 발표 : 2010년 10월 3일자 평화신문
- 시상식 : 10월 9일 오후 2시 서울대교구 선교대회
- 시상내역 : 대상-상금 200만원, 우수상-상금 100만원, 장려상-상금 70만원
- 기타 : 신청서는 사목국 누리방 (www.samok.or.kr)에서 내려받아 아래아 한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새회기 첫 사목상임위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김찌니 클라라 박희자 마리아 이경수 헬레나	(310)612-8840 (310)325-6982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김옥찬 수산나 562-628-1955 7/13(화)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이근태 세르지오 530-7702 7/18(주일) 오후 1시, 토런스파크
	3	신덕례 데레사 494-1390	신덕례 데레사 494-1390 7/15(목) 오후 8시1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김마틴&크리스티나 533-1435 7/9(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7/4(일) 오후5시, 할리웃보울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권영옥 루시아 720-2876 7/17(토)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김용 스테파노 378-4183 7/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이경수 헬레나 972-9193 7/14(수)오전 10시30분 성당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전하현 마리아 793-7733 7/9(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최미열 클라라 895-8624 7/18(일) 야유회 델슨 파크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7/11(일) 야외 반모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1/2 반과 합동 반모임 장소 : 샌 피드로 파크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P.V. 1,2,3,4 반 합동 반모임 7/10(토) 오전 10시, 라이언 파크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

칼럼! 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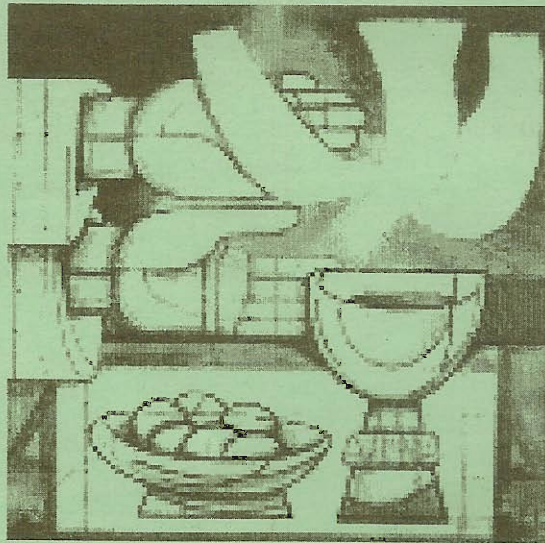
하루에 영성체를 몇 번 할 수 있는지요?

☞ 신자 가정에 비치해야 할 성물에는 어떠한 것들이있나요?

사제의 축복을 받아 성별된 것이나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을 '성물'이라 하며, 일상생활의 세속적 용도와는 다르게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데 사용합니다. 신자 가정에 비치해야 할 성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성경 : 성경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 2) 가톨릭 기도서 : 기도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며 주님께 대한 애정을 일깨워 줍니다.
 - 3) 성가집 : "성가로 기도드리는 것은 '두번'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교회의 속담이 있을 만큼 성가도 좋은 기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 4) 십자가상 : 십자가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께 감사드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구합니다. 십자가상은 집안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놓습니다.
 - 5) 성모상 :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을 모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6) 묵주 : 성모 마리아와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는 신앙심을 깊게 하는 영성적 수련의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생애·죽음·영광과 관련된 성서적 신비를 묵상하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 7) 성수 : 성수는 영원한 죄의 씻음을 상징합니다. 보통 성당 안에 성수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봉성체 때에, 또는 집 축성 예식 중에 성수가 사용됩니다.
 - 8) 성초 : 초는 자신을 죽이고 녹임으로써 세상에 빛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봉헌 축일(2월2일)에 초를 축성하고 나눕니다. 이때 축성받지 못했으면 개별적으로 사제에게 축복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예비신자들도 성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루에 영성체를 몇 번 할 수 있는지요? 지향이 다른 두 번 할 수 있다고도 하고, 성령세미나에선 두 번은 어느 때나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장례 미사에 연속해서 두 번 참례했을 때 장례 미사라는



지향은 같지만 사람은 다르니까 두 번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어느 미사에 참례하여 성체를 영했다 하더라도 같은 날 다른 미사에 참례하였을 경우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 17조 참조)

구 교회법전에 의하면 영성체는 하루 한 번만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단지 특수한 경우 예외가 인정되었답니다. 예를 들어 1973년 성사성성 훈령을 통하여 의무 대축일 전야 특전미사라든

지 세례, 견진, 혼인, 신포 등의 성사가 집전되는 미사나 성당이나 제단의 축성, 수도서원, 장례미사 등의 미사에 참례하는 경우, 이미 미사에 참례하여 영성체한 사람도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고 허락했습니다. 단, 이러한 특수미사에서 영성체를 한 교우가 그날 저녁에 다른 일반미사에 참여했을 경우 다시 영성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1983년, 새로이 반포된 교회법에서는 미사에 온전히 참례하는 경우, 하루 두 번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볼까요? 미사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예식이라 할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나 개인보다도 모든 이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미사에 참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특별한 지향을 갖고 참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적인 은혜, 죽은 이의 영원한 안식, 자기나 이웃의 현세적 이익,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지은 죄에 대한 속죄 등을 위한 지향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어느 특정한 미사, 예를 들어 특정인을 위한 위령 미사라 하더라도 참석한 모든 이가 그 영혼만을 위한 지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느 미사에 참례하더라도 각기 다른 지향을 가질 수 있으며 여러 지향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지 그 특정인을 특별히 더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어느 미사에 참례하건 온전히 미사에 참례한다면 하루에 두 번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다.

◆자료 : 서울 대교구 문화홍보국 정보마당